특 집

미술운동선상 80년대 벽화의 성과와 현재적 위치

현실의 조형적 총화

◇벽화란 벽에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들의 민주적인 논의를 필수적 전제로 한다

Ⅰ. 벽의의미, 벽화의 의미

벽에 그려진 그림이 벽화이다. 그렇다면 벽은 무엇일까. 우리가 '벽을 허물고'라든지 '벽을 넘어', '벽에 부딪혔다'라는 말을 쓰듯이 '벽'은 흔히 단절, 분단, 한계의 상징으로 우리 언어 속에 자리잡고 있다. 비유의 벽이 연상시키는 견고함, 거대함, 막막함에 연루되어 있는 실제 벽의 여러가지 인간적 해석인 셈이다. 얼마전 북한에서는 휴전선 부근의 '장벽'을 제거하라고 이쪽에 요구했고, 잘 알려진 '유리벽'이라는 노래도 있다. 실제로 도시에 사는 우리가 움직이는 방향과 경로는 벽들에 의해 주어져 있으며, 우리는 언제나 빌딩 사이나 골목 사이 혹은 복도를 벽에 따라 움직인다. 이웃간에 높은 '담벼락'이 있으며 타이핑을 하고 있는 필자의 눈앞에도 꽃무늬 벽지로 발라진 흰벽이 놓여 있다.

그러나 단절과 한계로서의 벽은 반대로 유용한 벽이기도 하다. 우리는 벽이 없으면 추위와 소음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먼지와 눈비, 홍수나 태풍, 도난이나 누군가의 침입에 무방비하게 된다. 벽은 안전과 보호의 그것이자 다른 한편 공간을 효율적으로 분할하는 공간의 기능적 충족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것은 방패막이도 되고 울타리도 되지만 단지 구별일 수도 있다. 벽은 공간의 단절을 통해서만 공간의 기능적 구분을 수행하는, 그 사이에 놓여 있는 것이다.

벽은 공간을 인간의 필요에 따라 양적으로 조직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다. 그러나 벽이 일단 생겨난 이상, 벽은 여러가지 다른 기능을 획득해 나간다. 벽을 따라 산책하며, 면벽하며 수도하고, 벽에 기대어 신문을 보거나, 벽뒤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와 친구를 골려주기도 한다. 벽에 옷걸이를 달고 시계와 달력을 걸며 그림이나 글씨를 건다. 낙서를 하거나 벽보를 붙이고 스프레이로 글씨도 쓴다. 벽의 활용도는 이렇게 무궁무진하게 확산되어 간다. 그러나 벽화는 이와는 약간 다르다.

벽에 의해 구획된 공간에 살며 벽에 의해 보호되고 유용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벽화를 이해 하는데 중요한 하나의 실마리가 된다. 그것은 한편으로 그 보호와 공간분할의 기능을 더욱 친화력있는 것으로, 더욱 유용한 것으로 발전시킬 여러가지 실용적, 예술적 발전가능성을 열어 놓는다. 반대로 그것은 그 단절과 구속의 가능성을 줄이며 오히려 벽의 집단적 소유의식을 강화함으로써 공동체의식을 형성, 혹은 공동체로의 형성을 지향하는 공공소통의 장으로 전화하는 것이다. 벽화가 벽을 단지 이용하는 여러 문화적인 행위와 구별되는 것은 그것이 벽 그자체의 존재이유에 밀착해 있는, 즉 벽을 활용하는 것 뿐만아니라 벽을 위한 것이라는 데 핵심이 있다.

"이제, 대중들은 공공미술(Public Art)이 본질적임을 실감한다. 왜냐하면 그들 각자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에 알맞기 때문이다. 예술이란 사람들 앞에 단단하게 가로막혀있는 장벽을 부수는 우주적(Universal)언어인 것이다." '월리업 워커(벽화운동가)', '거리의 미술'(열화당)에서 재인용.

벽은 어디에나 있으므로 벽화도 어디에든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쉽게 떠올리는 벽화란 대개 큰 외벽에 그려진 것인데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만약 독자가 자신의 방안에 벽화를 그린다면 그 벽은 당신과 호흡하는 당신에 대한 유기체가 될 것이며, 당신의 방 다운 당신 방으로서의 기능을 더욱 잘 수행할 것이고, 그 방안에 들어 올 사람들에게 당신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주게 될 것이다.

공공벽화는 일단 이와 같은 의미의 사회학적인 확대가 될 것이다. 벽화가 그려진 건물은 단지 위치와 기능으로서만 기억되지 않으며, 벽은 단지 그 위치와 지점을 확인해주는 죽은 물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만약 그 벽화가 나의 정서나 생활감정에 거슬리지 않고 나의 이해에 일치한다면, 나아가 내가 그 벽화작업에 참여했다면, 혹은 그 때문에 경관이 좋아졌거나 공간이 쾌적해졌다면 어떨 것인가.

Ⅱ. 하나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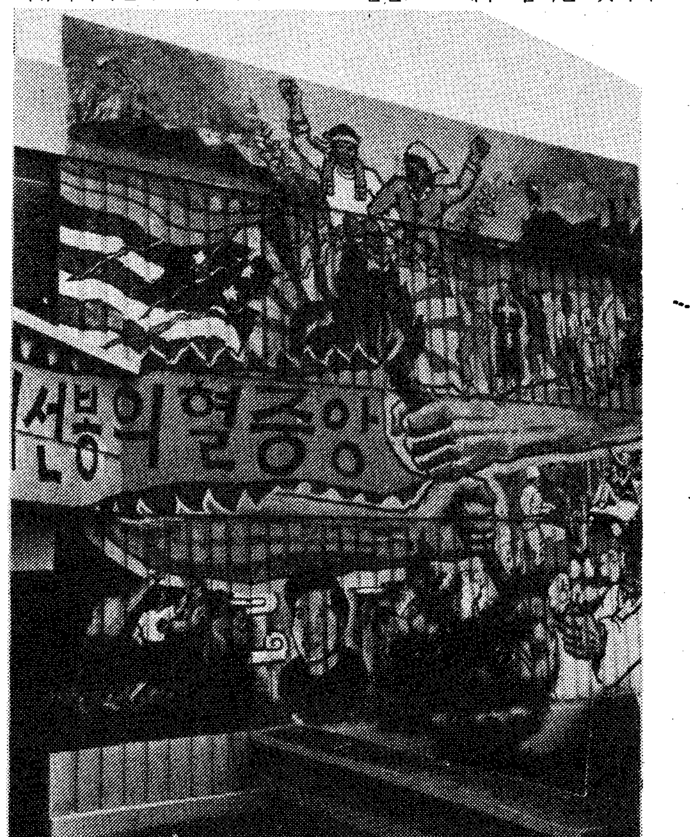
벽화는 단지 수공적인 벽지와 같이 장식적인 효과만 가질 수도 있다. 심지어 벽 자체가 우둘두둘하거나 타일에 색을 넣어 보기 좋게 한 것도 벽화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벽의 가공을 통한 벽화가 환경적인 데 더 역점을 두는 것이라면 일반적인 의미의 벽화는 환경적인 데 대해 커뮤니케이션의 역할까지 갖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의 벽화는 모든 벽에 빠짐없이 있을 필요는 없다.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벽이 우리 마음을 편하게 쉬게 할 수도 있으니까 말이다. 그러나 그래도 좋은 경우는 극히 드물다. 소통과 전달의 방식은 매우 다양해서 명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고 폭발적인 힘으로 선도할 수도 있지만 조용히 벽에 묻어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벽화의 다기능성, 다양한 형식적 가능성, 장소의 무제한 등은 어떠한 공통적인 요구를 충족할 때 훌륭한 작품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서울대에 있는 벽화 '단결과 전진'이 제작되었던 과정을 보자. 서울대 '미대 벽그림모임'은 수차례의 내부 모임을 갖은 후 2천여장의 벽화취지문을 배포하고 대자보를 붙이고, 8백여장의 설문지를 제작하여 벽의 주인인 학생들의 여론환기와 여론수렴을 도모했다. 이에 기초하여 밑그림을 그려내고 그려낸 밑그림을 공개해 다시 대중의 의견을 묻는다. 물론 밑그림의 과정에는 주변 조경과의 어울림이나 학생회관으로서의 의미등이 염두에 두어진다. 특히 학생회관 건물은 매우 무미건조하고 낡았으며, 당시의 창작역량으로는 많은 벽면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건물의 일부에 시각을 모아주고 액센트로서의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는 것이 요구되었다. 또 학생회관이라는 학생운동의 학내 중심지에 맹숭맹숭한 형식이나, 춤이나 추는 모습보다는 역동적인 형식의 투쟁모습이 제격이었다. 이 작업을 음양으로 방해 하는 학교 당국과 끊임 없는 실랑이를 벌이며 결국 실제 작업과정보다도 훨씬 긴기간의 준비를 끝낸다. 작업이 큰 탈 없이 끝나고 나면 이제 학우들이 모인 가운데 '벽그림 개막제'를 가져 이 그림이 모든 학생들의 것임을 공표하며 기쁨을 함께 나눈다.

이렇듯 벽화란 창작자의 의도, 벽의 주인, 벽에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들의 민주적인 논의(반대로 반민주적인 것에 대한 비타협적인 태도)를 필수적인 전제로 하며, 환경공학적인 고려와 함께 그 벽이 다른 벽과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자세한 판별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렇게 과정으로서의 벽화의 대중소유와 벽화로서의 환경매체적 적충을 갖지 못할 때 벽화는 또하나의 '벽'으로 군림하고 마는 것이다.

Ⅲ.그동안 일구어낸 벽들

80년대 미술운동이 벽화에 기울인 노력은 각별한 것이었으며, 한편으로 매우 힘겨운 것이기도 하였다. 최근 들어 각 대학에서 벽화가 캠퍼스의 한 구석을 장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지만 이렇게 되기 까지 많은 수난사를 거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 수난사는 미술운동에서 최초의 벽화로 기억되는 신촌벽화와 정릉벽화의 강제철거로 부터 시작하였다.



대학벽화는 단순한 유희나 투쟁의 형상으로 빠질 위험을 안고 있다

〈사진은 중앙대 안성캠퍼스 벽화〉

86년 최초의 신촌·정릉벽화 강제 철거수난

민족적 형식 외피만 본뜨는 교조주의 반성해야

지난 86년 신촌역 광장의 허름한 3층 건물외벽에 김환영씨등 당시 미술대학 재학생들이 시도한 '통일의 기쁨'이 구청 직원에 의해 지워졌다. 현재는 '호프'집이 된 이 건물 1층 벽에는 청년들이 꽃을 파는 아주머니와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졌고, 2층 벽에는 백두산 천지와 일하는 일용노동자, 농민, 학생, 사무직원들의 모습 등이 그려져 통일에 대한 관심이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방식으로 표현되었다. 이 작품이 철거된 이유는 5공 치하에서 뻔한 것이지만, 재미 있는 사실은 이작품의 공식적인 철거 이유가 '광고법 위반'이었다는 것이다. 마치 가두시위가 '도로교통법 위반'인 것과도 비슷하다. 작가들은 구청직원들이 지우면 다시 복원하고, 복원하면 직원들이 다시 지우는 등 실갱이를 하다가 끝내는 철거되고 말았다. 정릉벽화는 서양화가 유연복씨가 자신의 집 담벽에 그린 '상생도'라는 작품이다. 이 작품의 중앙에는 태극 문양속에 어깨춤을 추는 남·녀가 통일염원을 상징하고 좌우로 민중들의 삶이 펼쳐진다. 이 작품 역시 광고법 위반으로 철거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 정치적 내용을 갖는 벽화가 쉽게 철거될 수 밖에 없음은 이땅의 현실에 조금만 관심이 있어도 쉽게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같은 상황은 여기저기서 반복되었다. 따라서 벽을 수호할 수 있는 능력이 마련되는 것이 미술운동에서 벽화운동이 설수 있는 결정적인 문제로 지적되었고, 이에 벽화운동은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문제점을 극복해 나간 것으로 보인다. 그 하나의 방향은 '이동벽화', 즉 걸개그림의 도입이다. 또 하나는 주민의 참여를 획득하여 벽화를 책임있게 보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걸개그림은 이 글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므로 후자에 대해서만 살펴보자. 주민의 참여, 대중의 참여에 의한 벽화는 그 사람들에 의해 지켜질 수 있었다. 미술집단 '가는패'(현재의 서울민미련)에서 제작한 '청기 벽화'는 그곳 주민들의 생활과 관심사를 토대로 밑그림을 그리고 색칠 등에 농민들이 함께 참여한 방식으로 그려졌다. 이러한 방식의 벽화는 이후 '가는패'에 의해서 뿐만아니라 각 지방의 미술단체나 화가들에 의해, 미대생들의 농촌활동을 통해 꾸준히 현재까지 이루어 지고 있으며 간간히 도시빈민촌이나 대학에서도 이와 유사한 활동을 접한다. 이러한 작업에서는 무엇보다도 쉽고 대중적이지만 매우 구체적인 현실의 절실함이 담담하게 묘사되어 있음에 놀라게 된다. 충남서산군 안흥면 정죽리에 있는 그림패 '색올림'의 벽화, 경북 청송군 일월면 수하리의 농가에 그려진 '가는패'의 벽화, 경희대 '쪽빛'과 순창 오정자 마을 주민들이 그린 벽화 등 그 수는 적지 않은 것 같다.

◇지난 89년 본교 그림패 '쪽빛'은 전북 순창군 오정자 마을회관에 주민과 합동으로 벽화를 그렸다

가는패 주민참여 유도…생동감·현실감 표현 뛰어나

인물중심의 한정된 소재 내적 연관 결여 대학벽화

현재 한독금속, 아주파이프 등의 노조에서 후원하여 전문미술가들이 제작한 벽화들이 있고, 공주교소도에서 김정헌씨가 제작한 벽화가 있으며, 교회, 성당, 문화공간 등에도 벽화들이 간간이 있으나 그 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 이에 비해 대학에서는 비교적 활기있게 벽화작업이 있어왔다. 경희대에도 벽화가 있지만 일부가 파손되었다. 부산 동아대벽화도 경찰에 의해 스프레이로 많은 부분 파손된 바 있다. 어쨌든 현재 벽화가 있는 대학은, 거론된 학교를 비롯하여 경기대, 단국대, 외국어대, 중앙대 안성캠퍼스, 전북대 등을 기억할 수 있다.

이들 대학벽화들은 일정한 차이를 갖고 있지만 일정한 양식상의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다. 외국어대 벽화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검은 선으로 형상의 외곽이 그려져있고 평면적이고 장식적인 단색면 처리와 함께 사실적인 묘사는 주요인물등에만 국한되어 있다. 대개 투쟁하는 인물, 깃발, 백두산, 진달래, 문양화된 구름이나 파도가 등장하고, 여러 도상들이 특별하고 긴밀한 내적 연관의 드러남 없이 병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보인다.

Ⅳ.남은 벽들

필자는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벽을 일구어온 청년학생미술가들에게 힘을 주고 싶다. 그러나 그간 미술운동에서 이루어진 벽화, 그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학벽화에 대해 유감스러운 점이 적지 않다. 물리적으로 남은 벽들 이전에 그간의 벽화가 갖는 한계와 문제점이야 말로 우리에게 남은 벽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하나씩 지적해 보자.

우선, 지나친 봉건적 양식에의 경도를 지적할 수 있다. 이는 민족미술 진영 내부에서도 비판적으로 검토되고 있는바 소위 '민족적 형식'의 폭 넓은 의미를 양식적인, 그것도 민족형식의 일부인 탱화, 무신도의 그것으로 고착, 협애화 시키는 경향이 벽화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향은 오윤이나 홍성담이 도달한 독특한 원숙함과는 무관하게 단지 그 이들의 외피만을 교조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연유한다고 생각되는 한편, 현실의 고도의 조형적 집중이자 총화로서의 양식을 작품의 내용과는 관계없는 어떤 불변하는 틀로 간주하는 의식적, 무의식적인 미술관에서 발생한다고 생각된다. 전통적인 형식을 계승한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현재의 관점, 현재의 조건, 현재의 소통전략에 서서 그것을 조건적으로,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이는 민족전통적인 미술에 대한 깊이 있는 조형적 탐구를 통해서만 가능한.것이지 정해진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항상 진보적인 미술은 진보적인 형식을 추구하며 그 특별한 창조성을 젊은이들에게 요구한다. 그러나 오히려 반대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전달의 힘과 지속성, 감동의 깊이와 풍부함에 대한 솔직한 반성이 필요하다.

둘째로, 이와 관련된 문제인데–단순한 유희의 형상이나 단순한 투쟁의 형상으로 빠져서는 곤란하다. 하나의 작품으로 무엇을 전달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다. 많은 정보란 형상의 내적, 외적 조작성에서만 오는 것도 아니고 내용이나 형식의 각각에서 따로 따로 오는 것도 아니다. 작품의 발상에서 세세한 기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층위에서 명백하게, 혹은 불명확하고 지적으로 알기 힘든 데에서도 많은 예술적 정보가 담기는 것이다. 특히나 벽화는 이러한 함정에 빠지기 쉽다. 큰 벽을 다룰 때 일정하게 그래픽화 되는 것은 불가피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럴수록 형상은 단순화되는 것이 아니라 함축되어야 한다.

셋째로, 역시 관련이 깊은 것인데–벽화형식의 무궁무진한 형식적 가능성에 아직 접근 조차 하고있지 못하다. 벽화는 대형 만화일 수도 있고, 포스터 일수도 있고 대형 초상화이거나 풍경화일 수도 있다. 시각적 착각을 이용할 수도 있고 주변환경과의 연속이나 주변에 대한 도발적인 배치를 통해 지형지물을 이용할 수도 있다. 글씨를 이용할 수도 있고 기호, 도형, 음표 등을 사용할 수도 있다. 다양한 몽타쥬가 용이하며 엄청난 여백을 활용하기 좋다. 대형일 수록 원근감을 충격적으로 깊게할 수도 있다. 이와같은 형식의 다양함은 특히나 벽을 둘러싼 조경환경이나 그 벽의 시각적 수용범위, 수용조건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검토를 요구한다.

이러한 표현 방식의 다양함 만이 아니라 벽화환경자체를 다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까지는 대개 건물의 빈벽을 이용하였다. 이는 작업이 용이하고 구성이 간편한 장점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벽면 이외에도 활용할 수 있는 벽면은 널려있다. 도서관, 휴게실, 식당, 실기실, 강의실의 내벽과 외벽 모두가 벽화의 공간이다. 물론 이러한 공간에 작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당국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수도 있으며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바로 이러한 어려움들이 벽화운동을 전개하는데 결정적인 장애가 됨은 두말할 필요도 없지만, 바로 이러한 문제의 대중적 해결이야 말로 벽화의 강점이기도 하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우선 마찰을 피하면서 보편적인 공감을 획득하는 작업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열려있다고 본다. 그다음 재정문제의 해결을 생각해 보자.

글 앞에서 밝혔듯이, 벽화는 공공적인 기능, 공동체적 연대의 기록, 벽의 공간적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억압적 기능을 유용한 환경으로 전화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또 당연히 벽화의 소유는 대학벽화의 경우, 학생대중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벽화의 전체적인 계획이 하나의 총체적 문화행사, 최근 빈번히 쓰이는 말로 하면 '이벤트'로서의 성격을 가져 그 대중성과 공공성을 과정속에서 확인 받아야 한다. 하나의 이벤트가 성사되기까지의 행정적인 절차, 재정계획, 마스터 플랜이 공개되어 집단적인 점검을 받고 그 점검의 과정 자체가 공유됨으로써 이벤트의 절정인 벽화 제막식까지 대중의 직·간접적 참여를 고양시키는 것이다. 앞서 서울대에서의 예를 들었지만, 이보다 더욱 치밀하게 준비되어야한다. 심지어 어떤 재료를 쓰면 얼마가 들고 얼마나 오래 보존되는가에 대한 비교 명세서까지 공개해서 대중들이 요구하는 바를 정확히 아는 것이 대중의 도움을 받는 길이며 대중의 사랑을 받는 길이다. 또 제작기간 중이나 제막식 당일날 여러 부대행사를 개최하여 축체형식으로 이끄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작업이다. 무엇보다도 대중이 요구하는 벽화의 자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학내에는 무미건조한 곳이 많지 않은가. 이러한 다각적인 대중의 참여 유발동기가 주어질 때 '민중재정'은 실현된다. 벽화의 다양한 시안을 간단한 실크스크린으로 작게 만들어 판매할 수도 있으며, 달력이나 엽서등으로 연결할 수도 있다. 이 모두 벽화의 강점인 것이며, 어찌보면 본격적인 벽화운동이 전개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할 수도 있다.

Ⅴ.맺음말

미술사에 처음을 벽화가 장식하고 있다. 원시인의 동굴벽화다. 우리의 미술의 역사도 고분벽화에서 한 시기의 정점을 보여준다. 중세에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성당의 프레스코 벽화들이 있다. 절에 가면 아직 많은 탱화들을 볼 수 있다. 지하철을 기다리며 벽화를 본다. 그러나 이 장구한 미술사에서의 궤적에 비해 우리의 일상에 벽화는 아직 멀다. 아직 많은 벽들에 부딪히며, 아직 많은 벽들이 권위적으로 우리 앞에 군림하며, 우리사이를 가로막고 있다. 우리 자신의 몸을 치장하기 위해 각각 들이는 공을 생각해 보라. 그 공의 5분의 1만 우리 모두의 공간에 투자한다면.

박 찬 경
〈미술비평연구회 회원〉